

기록물을 활용한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 방안

부산광역시 중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도 윤 지*

1.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 2) 이론적 배경
2. 해외 지역사 교육콘텐츠 사례 분석
 - 1) 미국·영국·호주의 지역기록보존소 사례
 - 2) 분석 종합
3.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조사
 - 1) 역사교사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분석
4.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 방안과 설계 예시
 - 1) 개발원칙과 절차
 - 2) 부산 지역사 교육콘텐츠 설계 예시
5. 맺음말

* 울산대학교 대학기록관 기록연구사(yjjolie@hanmail.net).

[국문초록]

1960년대의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출발한 지역사 연구는 국가사 중심의 역사를 지양하고 다양성의 주체인 지역에 주목하였다. 지역화가 사회의 주요한 현상으로 등장하면서 지역사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으며 이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러한 지역사를 콘텐츠화 하는 사업에 비해 지역사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콘텐츠 개발은 미흡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학습의 기본 도구인 기록물(사료)를 활용한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해외사례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통하여 기록물을 활용한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 연구에서는 지역사, 지역사 학습, 교육콘텐츠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해외사례분석에서는 지역사 교육콘텐츠를 활발하게 서비스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의 주립기록보존소들의 지역사 교육콘텐츠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들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부산 지역의 중학교 역사 교사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에 반영되어야 할 14개의 범주와 35개의 하위범주를 추출하였다. 이론적 토대와 사례분석, 면담을 통하여 지역사 교육콘텐츠의 개발 원칙과 절차를 제안하고 이 절차에 따라 부산의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지역사, 교육콘텐츠, 주립기록보존소

1.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1876년의 개항과 1945년의 광복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정책의 주요 화두는 근대화였고 이는 선진화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일본보다 늦게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인 탓으로 식민지시기를 겪어야 했다는 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국가 중심 발전을 지향함으로써 지역은 자연히 구시대적인 것,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었고 단순한 행정 구역 이상의 의미는 갖지 못하였다. 역사 교과서 속에서도 국가사 수업은 있지만 지역사는 자취를 감췄으며 간혹 지역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해도 이것은 중앙사에 대한 종속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¹⁾

열악한 지역사 인식 속에서 1960년대 중반에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지역사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친 문화운동이며 이념이었다. 모더니즘 하에서의 세계화를 지양하고, 지역화 된 세계화의 개념이 대두하면서 획일적인 국가사 중심의 역사가 아닌 다양성의 주체로 지역이 부각되었다.²⁾ 정형화된 거대담론 연구에서 다양한 주제를 네러티브 형식으로 풀어어나가는 역사 연구로 전환되는 때에 지역사는 아주 적합한 소재이자 주제였다. 역사가들의 연구 주제가 국가사를 벗어나 점차 지역사로 전환되고 있으며, 단순한 지역의 사료 발굴과 지역 문화 자랑하기의 수준을 벗어나 체계적인 지역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지역사를 콘텐츠화 하는 다양한 연구와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최근 진행 중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1) 김광철, 「지역사 연구의 경향과 과제」, 『석당논총』 35집, 2005, 249-250쪽.

2) 역사문화학회, 『지방사연구입문』, 민속원, 2008, 13쪽.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프로그램은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 콘텐츠 사업의 하나이다. 이 사업에서는 지역별 문화 콘텐츠를 조사, 발굴하여 지역 특성을 대변 할 수 있는 내용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를 콘텐츠화 하는 사업은 활기를 띠고 있는 추세지만 정작 지역사 학습이 가장 시급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콘텐츠 개발은 미흡한 상황이다. 역사 학습은 세계사, 국가사와 같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지역으로 좁혀지는 연역적 학습보다는 개인과 지역에서 시작하여 국가와 세계로 확장되는 귀납적 학습이 효과적이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나와 내 지역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세계사, 국가사를 접하고 있으며 역사 인식이나 역사적 사고력 대신 암기식 역사 학습을 강요당하고 있다. 귀납적 원리에 따른 역사 학습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지역사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를 소재로 한 학습도구가 필요하다.

역사 학습의 기본 도구는 사료, 즉 기록물이다. 기록물을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고 이를 통해 역사를 학습하는 사료 학습은 사건의 표면적 서술에 그치는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경험에 의한 지식의 체득을 보장할 수 있다. 직접 경험이란 사건이 있었던 당시 상황의 사실적 재현이 아닌 기록물을 통한 추체험, 역사적 상상을 의미한다. 학습자가 역사 연구자와 같은 탐구 과정을 통해 역사적 연구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것이다.

사료 학습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도구의 하나로 역사 교육콘텐츠를 들 수 있으며 역사교육콘텐츠의 제작에는 역사적 기록물이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미 일반 역사의 학습을 위하여 역사적 기록물을 활용한 교육콘텐츠 개발이나 이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진 바 있지만 기록물을 활용한 지역사 교육콘텐츠, 특

히 지역사의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록물을 활용한 지역사 교육콘텐츠는 기록관이나 박물관, 공공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기록물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지역사 학습의 특성에 맞는 구조와 형식으로 콘텐츠화 하는 것이다. 지역사 교육콘텐츠는 역사관 형성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중등학교의 역사 교육에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터 잡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이해하고 삶의 지평을 넓힐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등학교 학생들의 지역사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활용한 지역사 콘텐츠 개발 방안을 살펴보고 부산 지역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콘텐츠 설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하여 연구에서 언급되는 개념들을 살펴보고, 외국의 지역사 교육콘텐츠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다음으로 역사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토대로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 절차를 도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1) 지역사의 개념

‘지역사’는 ‘지역’의 역사를 뜻하는 용어로 지역사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개념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한 시기 정치와 경제의 중심을 이루는 중앙을 제외한 영역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지방, 지역, 향토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이 용어들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범주와 의미는 차이가 있다.

향토는 조상 대대로 살아오고 있다는 전통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연구자가 태어나서 자란 고장이란 의미의 향토사는 연구주체와 연구대상
 상이 태생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지방은 중앙정부가 자리 잡고 있는 수도를 제외한 영역의 정치적·인위적
 경계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지방의 의미는 중앙과의 상위와 하위의 개념, 중앙에
 종속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사전적으로도 지방은 서울 이외의 지역,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지역
 은 인위적인 경계이기보다는 자연적·문화적 특성에 따라 구획된 영역을 뜻한다.
 그래서 지역사회란 일정한 영역에서 공동의식과 그 영역에의 소속감을 갖고 활동하는
 인간집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는 생활의 장으로서의 지역의 역사를 말하며 지역사
 학습은 학습자가 현재 생활하고 있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학습
 대상으로 삼아, 그곳 사람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이룩하였으며 현재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즉, “생활하고 있는 공간의 역사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역사교육의 목표
 성취와 동시에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기르는 학습이다.”³⁾

지역의 경제·정치·이데올로기 영역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지역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지역사는 민족사 전체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의의를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민족사 또는 일반사는 자칫하면 제도나
 구조의 문제에 치우쳐 구체적인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결여하기 쉽지만,
 지역사는 민중의 생활사를 생동감 있게 서술해낼 수 있다.”⁴⁾

3) 유승광, 「역사교육에서 지역사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구성 방안」, 『호서사학』 제44집, 2006, 30쪽.

4) 김광철, 「지역사 연구의 경향과 과제」, 『석당논총』 35집, 2005, 255쪽.

(2) 지역사 교육 현황과 필요성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집중형 교육체제를 갖추어 왔지만 교육의 분권화가 진전됨에 따라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및 교육과정 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주체에 따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지역 수준 교육과정, 학교 수준 교육과정 등의 교육과정 다원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과정 주체의 다원화가 시작된 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를 도모하였다. 이는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를 통해 종래의 국가사 중심의 획일성·경직성을 탈피하여 교육과정의 다양화·자율화·지역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7차 교육과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래형 교육과정’ ‘글로벌 창의인’ 등의 이슈가 대두되면서 지역사에 대한 내용이 빠지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중등학교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 초등 교육과정에서 일정 정도 다뤄지던 지역사가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갑작스럽다고 할 정도로 적은 비중으로 다뤄지면서 교과서의 내용은 더욱 축약되어 학생들의 이해가 어렵게 되었다. <표 1>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던 지역사 학습이 중학교로 가면서 급격히 줄어든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개정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내용 체계⁵⁾

학년	지리영역	일반사회영역	역사영역
초등학교 3-4 학년	·우리가 살아가는 곳 ·달라지는 생활 모습 ·촌락의 형성과 주민생활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이동과 소통하기 ·우리지역, 다른지역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지역 사회의 발전	·사람들이 모이는 곳 ·도시의 발달과 주민생활 ·다양한 삶의 모습들 ·사회 변화와 우리생활
초등학교 5-6 학년	·살기 좋은 우리 국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우리 이웃 나라의 환경과 생활모습	·우리 경제의 성장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우리 역사의 시작과 발전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한 고려 ·유교 문화가 발달한 조선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운동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중학교 1-3 학년	·내가 사는 세계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 ·극한지역에서의 생활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자연재해와 인간생활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도시 발달과 도시 문제 ·자원의 개발과 이용 등	·개인과 사회생활 ·문화의 이해와 창조 ·사회의 변동과 발전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정치 과정과 시민참여 ·경제 생활의 이해 ·인권 보장과 법 ·국제 경제와 세계화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등	<한국사 영역>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삼국의 성립과 발전 ·통일신라와 발해 ·고려의 성립과 발전 ·조선의 성립과 발전 ·조선 사회의 변동 ·근대 국가 수립운동 ·대한민국의 발전

*밑줄 친 영역들은 교육과정에서 지역사를 학습하도록 되어 있는 영역임

그리고 현장의 지역사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명확해 진다.⁶⁾ 비록 교육과정에 지역사 관련 주제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

5)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 교육과정해설』, 2009, 6-9쪽에서 인용.

6) 본 연구에서 진행한 역사교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2012. 9. 13 수행) 내용을 토

현장에서는 수업이 진행되는 예가 거의 없으며 간혹 수업을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교재가 현행 교과서밖에 없어서 그 내용이 빈약하다. 지역사 수업을 위해서는 현장 교사가 기록물이나 자료를 가지고 교재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 또한 시간적, 경제적 문제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간혹 있는 지역사 수업은 그 지역의 역사와 관련된 장소를 답사하거나 견학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한 간단한 팸플릿 자료나 도록 같은 것이 전부이다.

지역사 교육은 국가사 위주의 역사교육이 가지기 어려운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지식의 전달에 집중하고 역사적 통찰력, 탐구능력을 기르는데 소홀한 현재의 역사교육에 있어서 지역사 교육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7)

첫째, 지역사는 학생들의 역사학습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을 만들어 줄 수 있다. 한 나라의 역사보다는 한 지역, 특히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의 역사는 역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신에게서, 가족에게서, 이웃에게서 시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생히 알려줄 수 있는 소재이다. 독자성과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사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진 한국사 전체의 모습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⁸⁾

두 번째로, 역사교육과정에서 역사학습과 시민성 교육 사이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역사교육 과정 안에서 ‘권리’와 ‘의무’ 같은 시민성 교육의 이슈를 보다 ‘역사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사 교육의 실천 사례에서는 학생들이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과거를 탐구하는 것이 공동체 속에서 학생의 참

대로 하여 정리.

7) 최태정, 「향토사 학습의 원리와 지도」, 『역사학습지도의 원리와 실제』, 느티나무, 2000, 351-356쪽.

8) 이준희, 『역사교육, 달라져야한다』, 해안, 2001, 133-136쪽.

여의식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간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⁹⁾

셋째, 지역사 교육은 사회과 통합적 성격이 실현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준다. 지역에서의 공간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진 것이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특징을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시켜 지역 의식으로 발전하게 한다. 이 “지역의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문화로 탄생되며 이 지역문화는 다시 환류되어 시대와 더불어 독특한 문화를 생성해 낸다. 따라서 지역은 오랜 세월 쌓인 지층과 같은 문화와 역사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쌓인 퇴적층과 같은 지역사를 통해 역사, 문화, 사회, 지리, 경제, 정치적인 주요한 장면을 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퇴적층에 대한 교육이야말로 역사교육에서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일일 것이다.”¹⁰⁾

많은 연구에서 보듯이 역사학계와 교육학계, 기록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의 지역사교육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지 않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양자의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지역사 교육콘텐츠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3) 기록물을 활용한 교육콘텐츠

역사학계에서 원기록물을 이용한 사료학습의 효과나 장점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기록학계에서의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서비스하는 기관인 국가기록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지만 교육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으며 더욱이 지역사와 같은 경우는 이를 주도할 기관이 없

9) 박주현, 「역사 탐구 체험으로서의 영국의 지역사 교육」, 『역사교육연구』 14호, 2011, 9-10쪽.

10) 석병배, 「초등학교에서 지역사 자료로 역사하기: 남양주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사회과교육전공, 2012, 8쪽.

어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 장에서는 기록물을 활용한 일반 교육콘텐츠에 관한 연구를 먼저 살펴봄으로써 기록물을 활용한 교육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록학계의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로는 이은영의 연구¹¹⁾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관리 기관의 교육적 역할, 교육용 프로그램의 일차 사료 활용 방법,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콘텐츠 개발의 분석 대상을 국가 교육과정으로 한정하여 교과서 분석을 통한 주제 선정, e-러닝 콘텐츠 개발 절차인 ‘기획-분석-설계-개발-평가’의 전체적인 틀을 따라 교육용 콘텐츠 개발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대사 분야의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를 개발할 때 지침과 이론적 토대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교육용 콘텐츠에 기록물을 활용하는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해외 국가 기록관리 기관의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개발 절차를 기획에서 평가까지 단계별로 제시하고 세부 활동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록원과 사료관에 저장된 기록을 분석하여 현대사와 관련된 주요 기록 목록을 제안하여 이후에 콘텐츠 설계 연구에 기초를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우지원은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정보콘텐츠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¹²⁾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 주제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록물 선별지침, 교수·학생을 위한 콘텐츠와 연구자를 위한 콘텐츠 구축 이원화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위의 연구들은 기록물을 활용한 교육콘텐츠 개발 일반론으로서는 의미가 있는 연구일 수 있으나 지역사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

11) 이은영,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 전공, 2011.

12) 우지원,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방안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2010.

구가 요구된다. 지역사 학습의 수요자인 교사와 학생의 요구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이 없는 교육콘텐츠 개발 일반론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 교육 콘텐츠 개발 절차, 지역사 주제 선정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기록물 선정에 있어서도 국가기록원이나 사료관 같은 공공 기관 이외에도 지역사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을 잠재적 기록소장처 개발이 필요하다. 지역사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기관들에 분산 소장되어 있고 개인 소장자들이 가진 기록이 가치가 높은 경우도 많다. 지역사 연구자들 중에는 이런 기록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발로 뛰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 과정에서 발굴된 기록들이 박물관이나 역사관에 기증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므로 지역사 교육콘텐츠에 사용될 기록물 선정은 남아있는 기록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라는 주제에 맞는 개발 방법론의 구체화가 요구된다. 지역사라는 특수성과 지역사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제반 환경이 일반 국가사 콘텐츠와는 다르므로 그 개발 방향 또한 지역사의 특성을 살린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콘텐츠에 대한 초기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 교수·학습 설계를 따르기 보다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설계 절차부터 논의하고 이에 따른 올바른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2. 해외 지역사 교육콘텐츠 사례 분석

지역사 교육콘텐츠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미국과 호주, 영국의 주립 및 시립 기록물관리기관을 선정하였다. 사례분석의 1차 검토기관은 미국 50개 주립기록보존소, 호주의 8개 주립기록보존소, 영국의 16개

대도시 기록보존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별히 영국의 경우는 지방행정 제도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주립, 시립을 모두 포함한 광역 행정구역 중에서 인구별 주·대도시 16곳을 대상으로 하여 기관 웹사이트를 조사하였다. 이들 1차 검토기관 중에서 기록물을 활용한 지역사 교육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는 기관, 콘텐츠의 개수, 하위 메뉴 유무, 사용된 기록물, 업데이트 빈도 등을 선정 기준으로 하여 5개 기관을 최종 사례분석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사례는 선정 기준에 따른 상위 5개 기관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기록보존소(California State Archives), 캔자스 주립기록보존소(Kansas State Archive)와 호주의 빅토리아 주립기록보존소(Public Record Office Victoria), 영국의 런던 기록보존소(London Record Office), 스코틀랜드 주립기록보존소(The National Archives of Scotland)이다.

1) 미국·영국·호주의 지역기록보존소 사례

(1) 캘리포니아 주립기록보존소

캘리포니아 주립기록물관리기관은 교육 웹사이트인 'Learn California' (이하 런 캘리포니아)를 독립적으로 구축하여 지역사 교육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교수·학습을 위한 수업 강의안을 제공하고 있는데 모든 수업 강의안에는 기록물을 활용하고 있다. 학생, 교사,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기 다른 콘텐츠를 구축하면서도 주제나 전개 구조, 형식은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런 캘리포니아의 지역사 교육콘텐츠는 교사, 아키비스트, 석사과정의 인턴조교, 학생 조교, 캘리포니아 박물관의 직원들에 의해서 개발되었으며 지역사 주제들은 캘리포니아 주립 교육청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특히 '강의안(Lesson Plan)' 콘텐츠는 학년별로 나누어 구성

되어 있으며 평가 관련 콘텐츠들도 1단계부터 3단계로 심화·확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Student: Lesson Plan’은 런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지역사 교육콘텐츠로 12개의 캘리포니아 역사 관련 주제-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캘리포니아 대공황, 도시의 성장, 수력 채광, 일본인 이주 등-를 통해 주의 역사를 교육과정 안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 주제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주제마다 하위 메뉴를 4-12개씩 포함하고 있다. 이 하위 메뉴는 주제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를 가진다. 기록물의 유형에 따라 하위 메뉴가 나뉘기도 하며 타 기관의 콜렉션 링크, 간단한 게임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런 캘리포니아의 지역사 교육콘텐츠는 12개의 대주제 아래에 다양한 하위메뉴¹³⁾로 구성되어 있다. 첫 주제인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1906 San Francisco Earthquake)’의 경우, 관련 사진기록물을 전시한 ‘1906 San Francisco Earthquake Photographs’, 동일 주제를 다룬 타 기관(예: U.S Geological Survey)의 콜렉션으로 링크해서 자료를 제시하는 ‘Link to USGS 1906 San Francisco Earthquake’, ‘Link to San Francisco Historical Photograph Collection’, ‘Link to USGS Earthquake ABC’ 등이 있다.

(2) 캔자스 주립기록보존소

남북전쟁 이후 신문과 메뉴스크립트의 보존을 위해 신문사 편집자와 출판사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Kansas Historical Society’는 이후 입법과정을 거쳐 캔자스 주립기록보존소 역할을 하게 되었다. 캔자스 주립기록보존소는 설립 초기부터 축적된 신문, 메뉴스크립트 등의 기록물과 더불어 캔자스주의 행정기록까지를 모두 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콜렉션, 전시, 콘텐츠, 서비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교육콘텐츠는 웹사이트의 메뉴 중 ‘교육(Educate)’ 메뉴에서 링크하여

13) 교육콘텐츠의 하위메뉴 분석을 위해 콘텐츠 유형을 개인교수형, 교육게임형, 문제해결형, 자료제시형, 링크형으로 나누었음.

서비스하고 있다. 캔자스 주립기록보존소의 지역사 교육콘텐츠는 통사적으로 캔자스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몇 개의 콘텐츠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의 관심사에 맞추어 만들어진 지역사 교육콘텐츠이다. 특히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다양한 게임을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사 교육콘텐츠 중의 하나인 ‘캔자스읽기(Read Kansas)’의 경우 대상 학습자의 연령에 따라 초등, 초·중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누어¹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캔자스 주립기록보존소의 지역사 교육콘텐츠는 캔자스피디아, 학습경험 나누기와 같은 다양한 피드백 콘텐츠를 갖추고 있어 일방적인 교육 콘텐츠를 넘어서 소통과 나눔을 지향하고 있다. 콘텐츠의 개수가 많아 조금은 산만한 느낌이 있는 구성이지만 캔자스주의 역사를 학생들이 학습하기에는 어느 웹사이트보다 많은 자료와 구조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3) 런던 기록보존소

런던 기록보존소의 교육 사이트인 ‘Learning Zone’(이하 러닝 존이라고 함)은 런던의 지역사 교육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웹사이트로 기록물과 역사를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사이트는 과거 런던에 관한 사진, 이야기,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록보존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일반인이나 학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소개하는 콘텐츠로 ‘Archive Work’도 함께 가지고 있다.

러닝 존은 하위 메뉴 중에서 ‘School Mate’(이하 학교친구라 함)와 ‘Look at London’(이하 런던 살펴보기라고 함)에서 지역사 교육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학교친구 콘텐츠에서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도시답게 하위 콘텐츠는 흑인·아시아계 런던시민/프랑스계/

14) 위의 웹사이트 이용가이드에서 학습자의 수준을 Primary, Intermediate, Middle School, High School로 구분하였다. Intermediate School(초·중등학교)은 초등학교 상급과 중학교 중간의 학교로 12-14세 학생을 지칭한다.

아이리쉬계/런던공동체로 나누어서 서비스하고 있다. 각 인종별 사람들이 어떻게 런던으로 모여 들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타임라인을 그려서 각 시기별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되는 기록물은 지도자료, 오디오자료, 이미지를 동반한 이야기자료, 이미지자료, 문서의 5종류로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콘텐츠마다 제목 옆에 콘텐츠를 적용하여 학습 할 수 있는 대상 학년¹⁵⁾을 명시하여 교사들이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런던살펴보기는 사진기록물을 통해 런던의 역사를 학습 할 수 있는 콘텐츠로 오래된 사진들을 통해 런던시까지 모습의 변화, 사람들의 복식변화, 현대 런던의 발전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각 갤러리는 거리, 가게, 범죄와 처벌, 강, 마을생활, 철도 콜렉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주제별로 꾸며진 콜렉션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선택하게 되면 관련 설명과 함께 이미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답변을 받는 'Learning Note'콘텐츠와 연결된다.

(4) 스코틀랜드 주립기록보존소

영국의 스코틀랜드 주립기록보존소는 주도인 에딘버러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스코틀랜드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스코틀랜드 주립기록보존소는 지역사 교육콘텐츠와 관련된 두 개의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현장 견학, 웹 교육 위주의 아웃리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SAFS(Scottish Archives for school)이며 또

15) 영국의 학제 KS(Key Stage) 구성

- KS 0 : 3-5세
- KS 1 : 5-7세
- KS 2 : 7-11세
- KS 3 : 11-14세
- KS 4 : 14-16세
- KS 5 : 16-18세

다른 하나는 스코틀랜드주 전체 50여개 기록보존소의 기록물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서비스하는 SCAN(Scottish Archives Network)이다.¹⁶⁾

지역사 교육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SCAN은 스코틀랜드 주립기록보존소(NAS)와 문화유산기구(HLF), 유타 계보 협회(GSU)의 공동 프로젝트로 스코틀랜드 50여개 기록보존소 기록물의 전자 목록 단일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파손이 쉬운 역사적 기록물과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물이 디지털화 되고 콘텐츠로 만들어졌다. 기록물 콘텐츠화 작업과 함께 지역사 교육콘텐츠도 제작되어 현재 SCAN의 웹사이트는 ‘디지털 아카이브’·‘교육 모듈’ 메뉴 아래에 4개의 지역사 교육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¹⁷⁾

SCAN 웹사이트의 교육 모듈은 스코틀랜드의 탄광업, 기록물을 이용한 과거 찾기, 1830-1930년의 보건과 주택, 여성 참정권 운동의 4가지 지역사 교육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모든 콘텐츠는 SCAN 프로젝트에서 디지털화된 역사 기록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졌으며 스코틀랜드주의 역사 수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1830년에서 1930년 사이의 기록물을 대상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의 학습 콘텐츠 외에도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PDF파일로 제작하여 함께 서비스하며 관련 주제에 관한 타 기관의 학습 콘텐츠도 링크해 놓았다.

(5) 빅토리아 주립기록보존소

1973년 공공기록물법에 의해 설립된 빅토리아 주립기록보존소는 100km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는 행정문서와 함께 1830년대부터의 식민지시대의 기록, 이민기록, 선적기록, 왕립위원회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웹 사이트의 ‘교육(Education)’ 메뉴를 통해서 ‘한 장소, 많은 이야기’, ‘유레카 성채사건’¹⁸⁾, ‘물 이야기’, ‘원주민

16) 스코틀랜드 주립기록보존소 웹사이트, <http://www.nas.gov.uk/> [인용 2012.8.16].

17) SCAN 웹사이트, <http://www.scan.org.uk/> [인용 2012.8.16].

빅토리아인'과 같은 4개의 지역사 교육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¹⁹⁾

한 장소 많은 이야기는 하위 주제가 없으며 학생들이 직접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유레카 성채사건은 9개, 물이아기는 3개, 빅토리아 원주민은 3개의 하위주제를 갖고 있으며 이들 하위 주제들은 각 콘텐츠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빅토리아 주립기록보존소의 4개 지역사 교육콘텐츠 또한 여러 형태의 콘텐츠 유형이 혼합되어 있다. 특히 빅토리아주의 지역사 교육콘텐츠는 빅토리아 주립기록보존소의 컬렉션을 그대로 학습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링크에 의해 온라인 전시, 온라인 컬렉션으로 연결하여 기록물을 학습하고 다시 교육콘텐츠로 돌아와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기록물을 가공없이 그대로 보여준 후에 이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메뉴만을 교육콘텐츠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형태이다.

2) 분석 종합

(1) 유형

위의 사례분석에서 살펴본 5개 기록보존소에서는 많게는 십여 개에서 적게는 4개의 지역사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모두 기록보존소가 속한 지역의 학생과 주민, 연구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콘텐츠가 많다. 교육콘텐츠의 유형을 살펴보면 흥미 위주의 교육게임형 보다는 체계적 학습을 목표로

18) 유레카 성채사건은 1854년 빅토리아주에서 발생한 유레카 봉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호주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의식 성장에 중요한 사건이었다. 호주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일컬어지는 사건이 빅토리아주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 멜본 시내에 유레카 타워를 세워 이를 기리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 홈페이지,

<http://australia.gov.au/about-australia/australian-story/eureka-stockade> [인용 2012.8.21].

19) 빅토리아 주립기록보존소 웹사이트, <http://prov.vic.gov.au/> [인용 2012.8.21].

하는 개인교수형, 자료제시형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하위 메뉴로 교육 게임형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설계 시에 개인교수형이나 자료제시형 보다 시간과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캔자스 주립기록보존소는 5개의 교육게임형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다양한 주제, 기록물을 사용하여 설계되었으며 시뮬레이션형까지 결합한 완성도 높은 교육콘텐츠이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링크형 교육콘텐츠였다. 이는 자체 기관의 기록물뿐만 아니라 외부의 기록물까지도 함께 서비스하는 형태로 흩어져있는 다양한 지역사 기록물을 모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링크형의 서비스형태는 기관 내부의 다른 메뉴로의 링크, 외부 기관 컬렉션으로의 링크 두 종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외부 기관으로의 링크는 연결될 기관의 콘텐츠 또는 컬렉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선행하여 사전 학습을 돕고 있었다.

(2) 사용기록물

일반 교육콘텐츠에 비해서 주립기록보존소들의 지역사 교육콘텐츠에 사용되는 기록물은 지도 자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모든 콘텐츠에 빠지지 않고 사용된 것이 주, 도시, 마을 단위의 지도였으며 특히 개별 장소를 대상으로 한 스토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런던살펴보기’ 콘텐츠는 런던을 지도상의 5구역으로 나누어 거리, 가게, 강, 철도 등을 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전개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이 장소를 평소에 쉽게 접했고 콘텐츠 학습 후에 방문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콘텐츠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라는 성격으로 인해 공기록보다는 사기록, 신문기록 같은 기록물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법률 초안이나 보고서, 공문서 등의 기록물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된 기록물은 사적인 서신, 사진, 엽서, 지역신문 등이었다. 이는 학습자 주변의 이야기를 지역주민의

눈으로 학습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역사에 대한 귀납적 접근을 위해서 보다 친근하고 쉬운 기록물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캔자스 주립기록보존소는 초기 설립 주체가 신문사 편집장과 출판사들이었기 때문에 초기의 지역신문이나 잡지, 단행본이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되었고, 이들의 디지털 콘텐츠화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역사적 기록물, 즉 사료는 주로 주립기록보존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컬렉션에서 사용하지만 그 외에 박물관, 도서관, 역사관과 같은 유관 기관의 기록물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기관 간의 연계가 원활하여 저작권이나 소장처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상호 이용이 가능한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것이다.

(3) 개발주체 및 주제선정

지역사 교육콘텐츠의 주제는 지역의 표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선정되고 있었다. 미국, 영국, 호주 모두 주 교육청에서 제정하는 표준 교육과정이 있어서 이를 기초로 학년별 주제선정과 내용선정이 가능하였다. 특히 현직 교사나 정년을 마친 경험이 풍부한 교사에 의해서 콘텐츠 내용이 구성되고 있으며 정규 수업에서 교사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었다. 런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은퇴한 역사교사가 캘리포니아주 역사과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 주제는 캘리포니아주의 발전과정 중에서 스토리텔링 학습에 적합한 주제로 구성된다. 미국, 영국, 호주의 경우는 각 주마다 지역 단위의 교육과정이 따로 제정되기 때문에 지역사에 관한 주제 선정이 가능한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지역 단위의 교육과정 제정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있어 지역사에 관한 주제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역사 교육콘텐츠의 주제를 살펴보면 통사보다는 주제사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 주의 역사를 시작부터 현재까지 통사적 시각에서 학습하는 콘텐츠는 어느 주립기록보존소에서도 서비스하고 있지 않다. 이

는 지역사 학습에서는 통사보다는 지역의 역사 중에서도 지역성을 살릴 수 있는 주제사 학습이 적합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외국의 경우는 국가사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민중사 중심의 주제들이 많이 선정되고 있다. 그 지역의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이민자,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 등 범위가 매우 다양하였다. 런던의 학교친구 콘텐츠는 이주민의 이야기들, 스코틀랜드의 SCAN은 여성 참정권 운동을, 호주의 유레카 콘텐츠는 광부들의 인권 운동을 주제로 하고 있다. 지방의 독립운동, 민주화항쟁, 다문화가정 증가 등의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각 지역들에서도 이러한 주제들은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과제이다.

(4) 형식과 구조

기록물을 활용한 지역사 교육콘텐츠의 형식과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대다수의 콘텐츠는 서비스 대상 학년을 명시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학년의 어느 교과과정에 사용된다는 것까지 포함하여 제작된 경우도 있었다. 캔자스주의 콘텐츠는 크게 초등학교, 초·중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누어 서비스 대상을 구분하였다.

둘째로 지명이나 지리정보와 결합한 콘텐츠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지명의 유래나 변천, 지리정보원을 활용한 메뉴로 나타난다. 런던의 러닝 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런던살펴보기는 콘텐츠의 시작화면이 런던시 지도 위에서 시작된다. 런던을 구역별로 나누어 각 구역안의 거리나 가게, 건축물과 같은 공간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다. 학습자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가능하며 어렵게 느끼는 역사 내용이지만 이해가 쉬운 지리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역사에 대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셋째로 콘텐츠 메뉴 안에 교사를 위한 기록물 사용지침이나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수업강의안, 교수·학습 방법 외에도 사용된 기록물에

관한 설명,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이 콘텐츠를 학습하는데 있어서 교사의 역할을 설정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콘텐츠를 수업시간에 사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넷째로 사용기록물을 따로 모아서 사료학습에 대한 안내를 하는 콘텐츠를 구축하고 있다. 런던의 경우는 좀더 나아가서 기록물이 무엇인지, 기록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기록물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까지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콘텐츠 내에서 기록물을 활용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록 자체를 학생들이 직접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 이유는 기록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지발달에 있어서 구체적 조작기의 이후 또는 형식적 조작기에는 들어서야 하기 때문이다.²⁰⁾

마지막으로 콘텐츠를 통한 지역사 학습 이후에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았다. 캔자스의 과제나누기, 런던의 러닝노트, 스코틀랜드의 워크시트는 모두 학생들이 제시된 기록물과 관련 내용을 학습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적거나, 주어진 문제들에 대한 답을 도출하거나,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고 기록물과 연관시키거나 하는 등의 결과물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제출된 결과물들은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거나 이후의 학습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호주 빅토리아 주의 경우는 학교별로 기록보존소 웹사이트에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학생들은 기록보존소 웹사이트를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자신의 결과물을 자유롭게 업로드하고 이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종합

이상에서 살펴본 해외 기록보존소들의 지역사 교육콘텐츠의 특징과 콘텐츠들을 영역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0) 정선영 외, 『역사교육론』, 삼지원, 2004, 239-246쪽.

〈표 2〉 해외 지역사 교육콘텐츠 분석

영역	특징	해당 콘텐츠
주제선정	·현장경험이 풍부한 퇴직 역사교사가 책임자가 되어 주도	런 캘리포니아
	·현지 역사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공모전 개최	캔자스 읽기
	·주립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주제 선정	모든 콘텐츠
개발주체	·학교교사, 아키비스트, 유시기관 스태프들에 의한 공동개발	런 캘리포니아/SCAN
	·교육청과 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개발	캔자스 읽기/런던스쿨메이트 런던 록 앳 런던
유형	·개인교수형, 자료제시형 콘텐츠가 주를 이룸	모든 콘텐츠
	·교육게임형 콘텐츠는 하위메뉴로 서비스되고 있는 형태가 많음	캔자스 게임 콘텐츠 제외
	·문제해결형 콘텐츠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음	모든 콘텐츠
	·링크형 콘텐츠 사용	모든 콘텐츠
형식과 구조	·학년별 구성	런 캘리포니아/캔자스 읽기 런던 스쿨메이트
	·통사형식이 아닌 주제사 중심의 구성	런 캘리포니아/캔자스 읽기
	·지명, 지도와 결합한 콘텐츠 형식	캔자스 읽기/런던 록 앳 런던
	·민중사 중심의 콘텐츠 구성	런던 스쿨메이트/SCAN 호주 유레카 성채사건
	·교사를 위한 가이드 제시	런 캘리포니아 레스플랜 캔자스 레스플랜/SCAN
	·사용기록물을 따로 모아놓은 콘텐츠를 구비	캔자스 읽기
	·기록물과 함께 생각해 볼 문제나 의견들을 제시	캔자스 읽기/런던 록 앳 런던 스코틀랜드 SCAN
	·학생들의 학습 이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콘텐츠 구축	캔자스 과제나누기 런던 러닝노트/SCAN 워크시트
사용 기록물	·지도 기록물 중심	런 캘리포니아/런던 록 앳 런던 호주 한 장소, 많은이야기 호주 물이야기
	·지역신문 기록물 중심	캔자스 읽기/SCAN
	·사기록물 중심	캔자스 읽기/SCAN
	·인물 기록 중심	캔자스 읽기/캔자스 게임 호주 빅토리아 원주민
기타	·기록물을 사용한 역사학습의 중요성, 필요성을 명시	런던 스쿨메이트/록 앳 런던 SCAN
	·지역사 기록물을 서비스하고 있는 타 기관으로의 링크형 콘텐츠를 구축	모든 콘텐츠

3.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조사

1) 역사교사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 교육콘텐츠의 개발을 위한 절차, 형식과 구조, 주제 선정 등에 관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특정한 주제와 관련하여 경험을 공유하였거나 유사한 특성을 갖는 동질의 집단을 대상으로 토의 결과가 반복되는 경향을 보여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토론을 진행하였다.

(1) 인터뷰 대상

본 연구에서는 5명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포커스 그룹이 선정되었다. 인터뷰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소재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의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경력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교사들로 구성하였다. 웹상에서 서비스 되는 교육콘텐츠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컴퓨터, 스마트 기기,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과 조작에 익숙한 30대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가 교사들의 성별 및 인원, 연령, 경력 등은 <표 3>과 같다.

<표 3>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가자

	1그룹	2그룹
성별 및 인원	여2, 남3	여3, 남2
평균연령	33.4세	32.6세
학력	부산시내 사범대학 졸업	부산시내 사범대학 졸업
근무지	부산 소재 중학교	부산 소재 중학교
경력	평균 5.8년	평균 4.8년

(2) 자료 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사전 인터뷰 자료 배포를 시작한 2012년 9월 6일부터 인터뷰 내용 전사를 마친 10월 31일까지이며, 약 1주일 전에 미리 전자메일을 통해 연구 취지와 내용을 발송한 후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참가자들 모두의 동의를 구해 녹음을 하였고 이 자료는 연구 목적 외에 외부로 유출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생산된 녹음 파일과 연구자가 토의 진행 중에 작성한 노트, 녹음 내용의 전사본 등의 자료가 작성되었다.

인터뷰에 사용한 질문지는 <표 4>와 같이 Krueger & Casey(2009)가 제시한 질문 방식과 과정²¹⁾을 수정하여 도입 질문, 주요 질문, 마무리 질문의 3가지로 간소화하여 구성하였다.

21) Richard A. Krueger, Mary Anne Casey, Focus Groups, 4th ed., SAGA, 2009, pp.38-41. Krueger&Casey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5단계 질문방식: ① Opening Question ② Introductory Question ③ Transition Question ④ Key Question ⑤ Ending Question.

〈표 4〉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

시간	질문방식	질문내용
10분	도입 질문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사 수업을 진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00분	주요 질문	지역사 학습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수업에 교육콘텐츠는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역사 학습에서의 사료학습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사용하시는 교육콘텐츠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록물을 활용한 지역사 교육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어떤 유형의 콘텐츠가 적합하겠습니까?
		지역사 교육콘텐츠의 형식과 구조는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콘텐츠 제작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나 연구가 있습니까?
		지역사 교육콘텐츠에 사용되는 기록물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 기록물들의 가공 정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역사 기록물을 보유하거나 서비스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아시는 곳이 있습니까?
		지역사 교육콘텐츠가 개발된다면 수업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분	마무리 질문	부산의 지역사 교육콘텐츠에 적합한 주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팀이 구성된다면 참여할 의향을 있으십니까?
10분	마무리 질문	지금까지 토의한 것 외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녹음 파일과 전사본, 연구자의 메모를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 방법은 질적 내용 분석 방법 중에서 유형적 분석을 통해 진행하였다. 유형적 분석은 전체 데이터 세트를 이미 결정된 유형에 기초하여 집단이나 범주로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유형은 이론, 상식, 혹은 연구 목적에 따라 나누어진다. 이 분석은 포커스 그룹 연구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²²⁾

그룹 토의 종료 후 바로 녹음 내용을 전사하고 연구자의 노트를 함께 정리하였다. 그리고 분석에 앞서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분석 유형을 설정하였다. 이는 해외 사례 분석에서 이미 대영역으로 사용된 유형을 참고하였으며 지역사 학습의 필요성, 기록물 학습의 장점, 지역사 교육 콘텐츠의 유형, 형식과 구조, 개발 절차, 사용기록물, 부산 지역사 주제 7개의 유형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전사된 인터뷰 내용을 읽고 유형에 따라 자료를 범주화하는 코딩을 실시하였다. 유형과 관련된 표제어를 내포하고 있는 내용에 표시하면서 자료를 해독하고 각 표제어의 핵심 개념을 기록하면서 유형별로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표제어를 부여한 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반복되는 의미 또는 주제들을 하나의 코딩으로 묶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분석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요약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7개의 유형(영역)에서 14개의 범주와 35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이 결과는 앞선 장의 해외 사례 분석에서 나온 특징들과 함께 종합되어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 모형에 반영되었다. 각 영역별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22) J. Amos Hatch, *Doing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Settings*, 진영은 역, 『교육 상황에서 질적연구 수행하기』, 학지사, 2008, 242쪽.

〈표 5〉 인터뷰 내용 분석 결과 요약

영역	하위 범주	범주
지역사 학습의 필요성	학생들의 흥미 유발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음
	귀납적 역사학습	
	견학, 체험학습과 연계를 통한 피드백이 용이	
기록물 학습의 장점	말로 하는 설명보다 눈에 보이는 수업이 가능함	실물교육에서 오는 흥미유발과 사고력의 향상
	단순 읽기를 벗어나 사고를 요하는 학습이 가능	
	해석을 다양성을 통해 역사에 대한 개념을 새로 정립할 수 있음	
지역사 교육 콘텐츠 유형	단순한 자료제시형 콘텐츠가 다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게임형 콘텐츠를 개발해야 함
	학습효과는 교육게임형이 가장 높음	
	여러 곳에 흩어진 기관들의 기록물을 함께 활용 필요 있음	지역사 기록물을 서비스하는 기관간의 자료공유(링크형)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구비되어야 함	
지역사 교육 콘텐츠의 형식과 구조	학생들의 능력 차이가 큼	학년별, 능력별 차이를 고려한 차등화를 해야 함
	중학교 1학년과 3학년의 이해력은 큰 차이가 있음	
	활자 중심의 콘텐츠는 지양해야 함	동영상과 활자를 결합한 형식의 콘텐츠를 만들되 단순 제시형을 지양해야 함
	동영상만 보여주는 콘텐츠는 학생들이 지루해 함	
	동영상, 플래쉬자료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익숙한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은 직접 조작하고 만드는 활동에 익숙함	콘텐츠 학습 이후의 체험활동, 이를 통한 사후 결과물 제출을 가능하도록 해야 함
	지역사 학습의 장점인 체험과의 연계가능성을 높여야 함	
	수행평가와 연계한다면 학교 학습에서 효율적임	
개발 절차	역사교사가 포함되어야 함	지역사연구자, 역사교사, 기록연구사로 이루어진 연구팀이 필요함
	시스템적인 부분은 지식이 없어서 힘들	
	어떤 기록물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지역사 기록물 소장기관간의 통합 목록 작업이 요구됨
	지역사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함	

사용기록물	소장처가 다양하지만 자료의 양은 많음	지역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행정기록물 활용
	지역 신문사, 구청, 방송국 등의 자료를 활용	
	지도의 이용	지도, 장소를 활용하여 관련된 기록 모으기
	장소나 지리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이 효율적임	
	한자 기록물, 고어체 기록물은 이해도가 떨어짐	기록물에 대한 가공(번역, 해석, 해제)이 필요함
	원기록물과 함께 해석을 위한 도구가 있어야 함	
부산 지역사 주제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중앙의 주목을 받기 시작함	부산 지역사는 근대사 중심의 주제사 콘텐츠 제작이 필요함
	개항 이후부터 도시로서 본격적으로 발전	
	전근대까지는 부산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고 연구도 많이 없음	
	부산의 발전에 일본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음	근대사 중에서도 한일관계사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현재 교육되는 부산 지역사는 임진왜란, 개항, 동래부순절도, 조선통신사 등이 있음	

(2)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영역별 기술분석

① 유형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교육콘텐츠는 자료제시형과 개인교수형인데 형태가 단순하고 기록물이 교과서 위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학습 활용도가 높지 못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따라서 기록물을 활용한 지역사 교육콘텐츠의 유형 영역에서는 교육게임형 콘텐츠 개발과 소장기관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링크형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교육게임형의 경우는 스토리가 더해져서 기록물과 함께 학습된다면 학습효과가 크고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다고 하였다. 하지만 시각적이

고 재미만을 추구하는 상업성 게임 유형을 너무 따라가게 된다면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학습효과, 즉 역사적 사고력이나 탐구력, 비판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게임형 콘텐츠 개발은 양자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으로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도 여러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지역사의 경우 기관 별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성격이나 유형이 다양하여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기록물, 기록물 컬렉션, 콘텐츠들에 대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 교육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연계할 수 있는 기관으로 부산 박물관, 근대 역사박물관, 40계단 기념관, 세관 박물관, 대학 박물관, 부산 시청, 각 구청, 임시수도 기념관, 백산기념관, 조선통신사 박물관, 여타 다양한 역사관 등이 거론되었다.

② 형식과 구조

형식과 구조에 대해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먼저, 학년별·개인능력별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단계의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한 학급의 약 30명 남짓한 학생들 사이에도 기록물을 이해하는 능력의 차이는 크며 같은 중학생이지만 1학년과 3학년의 차이도 상당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동영상·이미지·플래쉬와 활자를 결합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하되 단순 제시형식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활자 중심의 콘텐츠는 교과서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활자를 최소화 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즐겁로 쓰인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동영상·플래쉬 자료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접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자극만으로는 더 이상 흥미를 끌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5분 내외의 동영상과 한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록물보다는 사고력·탐구력을 요하는, 학생들의 능력보다 조금 어려운 기록물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지역사 교육콘텐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체험학습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가사를 학습하는 경우, 책으로 활자로 배운 내용은 직접 눈으로 볼 기회가 많지 않은 반면, 지역사의 경우는 가까우면 집이나 학교 바로 옆에, 멀어도 학생들이 스스로 가볼 수 있는 거리 안에 관련 장소나 사적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주 5일제 수업으로 주말에 동아리활동, 토요스쿨과 같은 체험형 수업이 많은 지금, 지역사 교육콘텐츠 학습 이후에 이와 연계하여 견학을 하고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는 콘텐츠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③ 사용기록물

지역사 학습에 사용될 기록물로는 먼저 지역에서 발행되는 여러 간행물이나 행정기록물이 거론되었다. 부산 시청의 소장 기록, 각 구청에서 발행하는 구지, 통계와 같은 공적 기록이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가장 먼저 고려되었다.

그리고 공적 문서 외에도 지역문화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많은 간행물이 있으며 이것들을 제대로 서비스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콘텐츠가 사용된다면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중요한 사기록물의 종류로 지역 방송국에서 제작된 영상 자료, 신문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오래된 신문 아카이브, 개인 소장가들의 사진, 엽서, 포스터, 박물관 등이 주요 기록물로 제안되었다. 특히 지역 방송국에서 제작된 지역사 다큐멘터리를 이용한 지역사 수업 사례를 들 수 있었는데 일반 역사 학습에 비해서 학생들이 몰입도가 높았다고 한다. 개인 소장가들의 기록물은 현재 박물관이나 기념관, 역사관 등에 기증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과의 연계가 요구된다.

또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기록물에 대한 가공, 즉 번역·해석·해제 등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

로 제시되었다. 학생들은 한자는 물론이고 한글이라 하더라도 오늘날 잘 쓰이지 않는 단어들은 외국어처럼 어려워 한다는 것이다. 사료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기록물을 제시한 후에 해석 화면, 번역 화면, 설명 화면 같은 2차 화면을 제공해야 한다.

④ 개발절차

지역사 교육콘텐츠의 개발 절차에 관한 영역은 질문지에 명시되어 있던 질문이 아니었지만 포커스 그룹 인터뷰 도중에 자연스럽게 많은 의견이 제시되어 하나의 영역으로 범주화 한 영역이다. 콘텐츠의 개발 전에 선행해야 할 문제들, 개발 과정에 반영해야 할 문제들이 교사들의 입장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은 교사들의 지역사회 교육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콘텐츠는 출판사에서 제작한 자료제시형 콘텐츠나 에듀넷에서 제작한 교육콘텐츠이다. 출판사의 콘텐츠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순한 이미지의 나열에 불과한 경우가 많으며 에듀넷 콘텐츠 또한 전 과목을 대상으로 많은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여 현재는 업데이트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만한 적절한 교육콘텐츠가 없으며 특히 지역사는 더욱 그렇다고 하였다.

교육적 관점에서 수업활용도가 높은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교수 지식, 노하우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콘텐츠가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가 현장에서 콘텐츠를 제작하여 사용하기에는 시스템이나, 기록물 활용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 부족하여 한계가 있다고도 하였다. 즉 지역사회 교육콘텐츠 개발에는 예산의 투입과 함께 교사, 지역사회 연구자, 기록연구사의 공동 작업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콘텐츠 개발에는 지역사와 관련된 어떤 기록물들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 또는 목록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비록 기록물이 콘텐츠에 직접 활용되지는 않더라도 자료제시형의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록물을 학생이 자유롭게 검색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다양한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록물 검색이 어려운 경우는 자료의 소장처 목록 작업만이라도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⑤ 부산사 주제

부산 지역사 교육콘텐츠의 사례 설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부산의 역사에 관한 주제를 다루어 보았다.

먼저 부산이라는 명칭에 대한 이야기가 제시되었다. 현재의 부산은 동래라는 지명으로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오다가 일본 식민지 시대 부산부가 설치되고 이를 중심으로 행정이 이루어졌다. 정부수립 이후 1949년에 현재의 부산시라는 행정구역 명칭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수업시간에 언급한 교사가 비교적 많았으며 학생들의 관심 또한 높았다고 한다. 그래서 지명과 관련된 독특한 역사가 있는 부산의 경우는 지명, 행정구역의 변화와 같은 현상이 콘텐츠의 주제로 흥미로워 보인다.

다음으로 부산이 발전하게 되는 계기를 물었을 때 조선시대의 왜구 침입, 임진왜란, 개항과 식민지 시기와 같이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변방으로 취급되던 동래현은 고려 말 왜구의 침입으로 주요 군사 지역인 진이 설치되고 군대가 주둔하면서 왜구 방어기지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왜란과 교역을 번갈아 겪으면서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은 현재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가르치는 지역사 내용-임진왜란, 개항, 조선통신사-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의 토론 내용에서도 일

본의 역할을 논의할 때 자신도 모르게 주변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아직도 식민지 시대를 겪은 민족 정서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의 길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식민지 기억을 넘어서 부산의 역사와 일본과의 관계를 조명해보는 것은 더욱 학습할 가치가 있어 보였다. 즉, 부산의 지역사 교육은 근대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며 이 중에서도 한일관계사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4.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 방안과 설계 예시

1) 개발원칙과 절차

교육콘텐츠 설계를 위해서는 먼저 학습 내용 분석, 학습자 특성 분석, 환경 분석 등의 절차를 거쳐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내용 구조와 교수 방법을 설계한다.²³⁾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지역사를 학습 내용으로, 중학교 학생을 학습자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율 학습을 학습 환경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교육콘텐츠의 학습 목표는 기록물을 활용한 지역사 콘텐츠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지역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하는 것으로 하였다.

기록물을 활용한 지역사 교육콘텐츠의 개발 방안 연구를 위해 앞에서 외국의 지역사 교육콘텐츠를 분석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역사 교수·학습의 담당자인 역사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주제 개발을 위해 지역사 연구자를 면담

23) 조미현, 『e-Learning 콘텐츠 설계』, 교육과학사, 2004 에서 요약.

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의 결과들을 토대로 기록물을 활용한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원칙과 개발 절차를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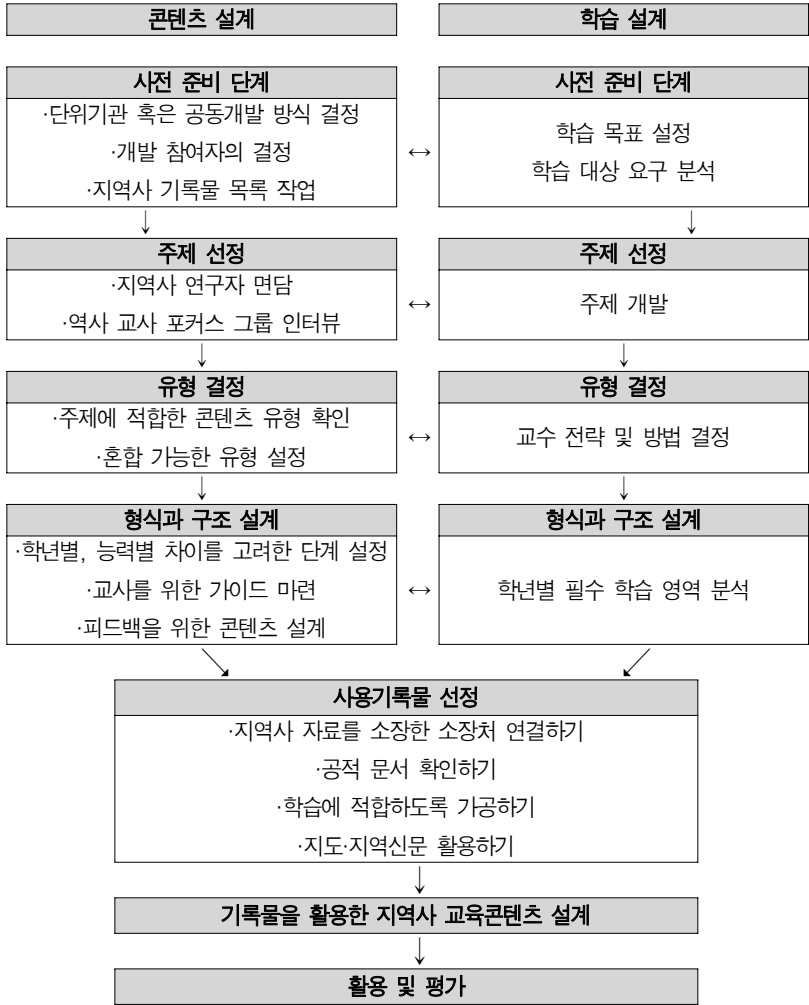
개발원칙은 크게 주제선정, 유형, 형식과 구조, 사용기록물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주제선정에서는 일반 역사 교육콘텐츠 개발과 달리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에서는 분석할 교육과정이나 정규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지역사 주제선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유형에서는 학습에 가장 효율적인 교육콘텐츠 유형과 기록물의 분산 소장에 따르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형식과 구조에서는 지역사 교육콘텐츠의 진행 방식, 설계 구조와 관련된 원칙을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용기록물 영역에서는 지역사 기록물을 통합하고, 학습에 적합하도록 가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교육콘텐츠 설계는 그 특성상 콘텐츠의 설계 외에 학습 설계도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자를 결합하여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 원칙과 설계 절차를 제시하면 <표 6> 및 <그림 1>과 같다.

<표 6> 지역사 교육콘텐츠의 개발 원칙

영역	내용
주제선정	·선행의 지역사 연구를 토대로 하여 지역사 학습 수요자의 요구분석과 지역사 연구자의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한다. ·다양한 주제 선정 후에 단계적으로 콘텐츠화 한다.
유형	·다양한 유형의 개발을 전제로 하되 학습자의 성향을 고려하여 교육게임형을 우선 개발한다. ·소장기관, 콘텐츠 서비스기관들과의 기록물 공유를 위하여 링크형 콘텐츠를 제작한다.
형식과 구조	·공간 중심의 콘텐츠 진행을 지향한다. ·체험, 견학, 방문과 연계된 피드백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 한다. ·교수자를 위한 가이드와 지침을 제공한다. ·학년별, 능력별 차이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콘텐츠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용 기록물	·공적 기록물과 지역사 자료(사기록물)를 소장한 소장처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록물을 연계 사용한다. ·기록물 이해에 필요한 일련의 가공과정을 수행하며, 학습자가 기록물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한다. ·텍스트, 이미지기록물과 함께 구술기록물을 생산·수집하여 활용한다.

〈그림 1〉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 절차



지역사 교육콘텐츠의 개발은 지역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콘텐츠 개발과는 다른 방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주제 선정

방식에 있어서 많은 교육콘텐츠들이 채택하고 있는 교육과정 분석, 교과서 분석은 지역사 교육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각 지역의 지역사 교육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처럼 역사교사 인터뷰, 지역사 연구자 면담과 같은 방법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들이 확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사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에서는 주제 선정에 관한 연구자 선정이 필요하였으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다양한 주제 개발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지역사 교육콘텐츠의 구조는 이후의 체험학습과 연계되어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학습 관련 피드백 콘텐츠가 아니라 지역사와 관련된 체험, 견학, 방문 학습과 연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익숙한 곳, 가까운 곳, 내 주변의 특정 공간이라는 지역사의 최대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통해 모아지는 피드백은 앞으로의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에 중요한 사전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콘텐츠의 세부적인 진행구조는 학습자에게 친숙한 장소들을 이용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 역사 학습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시대별 통사 형식은 한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을 학습할 때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주제사로 콘텐츠를 설계할 때에는 주제의 분야를 장소, 인물, 사건 등과 같은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모든 주제를 하위 메뉴로 포괄 할 수 있는 것은 장소, 즉 공간이다. 지역사의 성격이 제한된 지리적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사건, 관련인물들을 종합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는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학습해 나가는 귀납적 역사학습 방법에도 부합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2) 부산 지역사 교육콘텐츠 설계 예시

(1) 주제선정

부산 지역사 교육콘텐츠 제작을 위한 주제 선정을 위해서 해외 사례 분석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역사 교사, 지역사 연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역사 교사 인터뷰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부산의 지역사 연구자는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역사교사와 지역사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부산의 역사는 한일 관계사가 도시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부산이 도시로서 성장한 것은 왜구의 출현으로 인한 군사시설 설치가 시작이었으며 이후 일본과의 무역, 충돌, 개항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부산이 틀을 잡게 되었다고 하였다.

부산 지역사에 관한 주제는 사건, 인물, 장소, 시대 등의 분야에서 부산 지역사에 관한 주제어를 발췌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 프로젝트팀으로부터 주제어를 받아 이 중에서 사례분석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장소) 분야를 주제로 하여 콘텐츠를 설계하기로 하였다. 프로젝트 팀으로부터 받은 주제어는 3천개 이상이었으나 그 중에서 장소 분야, 임진왜란 이후의 시기로 필터링 하여 100개의 공간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다시 지역사 연구자 3명을 선정하여 주요 공간의 선정을 의뢰하였으며 연구자 구성은 <표 7>과 같다.²⁴⁾

24) 현재 부산 지역사 연구를 수행중인 연구소의 교수 및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들로 구성하였음.

〈표 7〉 면담 대상 지역사 연구자

	연구 분야	연구 경력
연구자1	근현대경제사	15년 이상
연구자2	조선시대한일관계사	15년 이상
연구자3	조선후기경제사	15년 이상

각 연구자들은 각각 20개의 주제어를 선택하였고 대상 주제가 아닌 공간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간은 기타 의견으로 제시해 주었다. 연구자들이 선정한 주제어들의 교집합을 조사하여 3명 전원 일치 항목 8개, 2명 일치 항목 11개, 기타 추천 5개 총 24개의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도출된 공간 관련 주제어는 〈표 8〉과 같다.

〈표 8〉 지역사 연구자의 주제 선정 일치표

3명 일치	영도 전차중점 기념비, 40계단, 가덕도 외양포 일본군 포진지,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 부산진 일신여학교, 동래별장, 근대역사 박물관, 부산진 매축기념비
2명 일치	서면로타리 부산탑, 용두산 신사, 북병산 배수지, 정란각, 오탈환 생가, 초량교회, 동래일성관, 박차정 생가, 일본인 공동묘지, 임진동래의총, 약조제찰비
기타 추천	영도다리, 부산세관(부산잔교), 범어사, 부산부청, 동래고등학교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자들이 부산 지역사와 관련하여 집중적인 관심을 보인 24개의 주제 중 40계단,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서면로타리 부산탑, 범어사 등 4가지를 제외한 20개의 한일관계사 관련 주제를 이 연구에서 개발 대상으로 한 교육콘텐츠의 주제로 선정하고 이를 제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콘텐츠 유형 결정

현재 많은 교육콘텐츠에서 사용되고 있는 콘텐츠 유형은 자료제시형,

개인교수형이었다. 그러나 이는 제작의 편의를 위주로 한 방법이며 학습 효과나 학습자의 흥미가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교육게임형을 기본으로 하고,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료제시형을 혼합한 형태의 교육콘텐츠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게임형 콘텐츠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용 콘텐츠에 오락적 요소가 강조되어 도전, 흥미, 호기심 등의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습 진행과정에서 지식의 습득과 함께 점수, 등수, 성취감과 같은 보상이 함께 주어진다.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므로 다른 유형의 콘텐츠에도 통합적으로 적용되어 하위 메뉴로 서비스되는 경우가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게임형의 장점을 보다 신장하기 위해 게임형을 주 유형으로 하고 이에 따르는 학습을 위해 부수적으로 자료제시형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교육게임형 콘텐츠에서 구현될 수 있는 게임의 종류는 다양한데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탐험 유형, 판/카드놀이 유형, 전투 유형, 논리 유형 등이 있으며 그 내용은 <표 9>와 같다.²⁵⁾ 본 연구의 사례 설계는 공간을 주제로 한 것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탐험 유형을 선정 하였다.

〈표 9〉 교육게임형 콘텐츠 유형

탐험 유형	학습자는 게임이 제공하는 단서나 정보를 이용하여 학습 대상이 되는 세계를 탐구하며 알아가는 유형
판/카드놀이 유형	장기, 비둑, 윗놀이 등 전형적인 놀이판이나 카드 게임으로 진행되는 유형
전투 유형	학습자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와 컴퓨터가 무기, 전술을 이용하여 서로 대항하는 유형
논리 유형	논리적인 사고를 이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풀어나가는 유형

25) 조미현, 앞의 책, 236쪽.

(3) 형식과 구조

기록물을 활용한 교육콘텐츠는 문자에 의한 설명을 최소화하는 형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문자 중심의 콘텐츠는 이미 많은 기관들에서 손쉽게 만들고 서비스하고 있지만 활용도가 높지 않다. 교과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콘텐츠는 현장 수업에 적합하지 못하며 줄글이라는 시각적인 형식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의욕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메인 화면에서는 문자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기록물을 크게 배치해서 설명 전에 관심을 환기시키도록 한다. 해외 사례에서 첫 화면에 가장 많이 배치된 기록물은 서신, 지역신문, 민중 생활 사진이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학습에 있어서도 수동적이기 보다는 직접 조작해 보고 싶어 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어릴 때부터 수행 학습, 포트폴리오 작업 등 스스로 학습의 결과물을 산출하는 교육과정으로 학습해 왔기 때문에 교육콘텐츠 또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콘텐츠는 학습 이후에 학생들이 결과물을 제출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 결과물은 공유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터치를 통한 화면 조작이 가능한 게임형 콘텐츠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장소·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콘텐츠의 경우는 학습 이후에 학생이 방문·견학을 하였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 학습이 체험학습과의 연계가 장점인 것을 고려하여 자료제시형 화면에서 해당 장소를 방문하는 방법,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장소의 특성, 주변의 관련 장소 등을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학교에서는 이 콘텐츠를 수행 평가나 토요 스쿨, 동아리 활동과 같은 정규 수업외의 수업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학년별,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학년에서 필수적으로 학

습하여야 할 영역이 있는데, 이에 따라 콘텐츠 학습이 가능한 학년을 제시하거나, 또는 제시 기록물의 난이도에 따라 상·중·하와 같은 수준 표시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학적으로 학습대상을 분석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콘텐츠의 세부적인 형식을 살펴보면, 게임의 시작 화면에서 제시되는 부산 지도에는 학생들이 들으면 쉽게 알 수 있는 지명이나 장소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 주제와 관계있는 한일관계사 관련 장소들은 해당 콘텐츠와 링크된 버튼으로 제공된다. 많은 지명이나 장소가 메뉴로 제공되지만 이들 중 정해진 20개의 장소만이 한일관계사와 관련된 공간이며 그 외는 부산 지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공간들이다. 이는 오답을 클릭했을 때에도 다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해당 공간이 부산의 어떤 역사와 관련 있는지를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일관계사와 관련된 20개의 장소를 모두 클릭하여 학습하게 되면 20개의 장소가 연결되는 루트가 형성되고 정확한 모양이 나오면 게임이 끝나면서 학생의 학습 점수가 주어진다. 점수 외에도 누적되는 스티커, 훈장, 자격증 등이 보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4) 기록물 선정

부산 지역사 교육콘텐츠에서 제시되는 첫 기록물을 지도로 선정하였다. 이는 지역사 학습에서 지도가 가질 수 있는 장점으로 지도상의 장소들을 학습자가 익숙하게 알고 있으므로 학습 내용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부산시 전도를 사용하여 지역사 교육콘텐츠가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 부산시 전도에 학생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지명이나 교통요지, 건물명 등을 표시하여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장소별 자료제시형 콘텐츠에서는 먼저, 가공되지 않은 원기록물을 학생들에게 바로 제공하도록 한다. 해석이나 이해 이전에 기록물이라

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기록물을 제시해서 학생들의 궁금증,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다. 부산 지역사와 관련된 원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부산 지역사 기록물 소장처

박물관	부산박물관, 북천박물관, 범어사 성보박물관, 세관박물관, 대학박물관 ²⁶⁾
역사관	부산근대역사관, 조선통신사역사관
기념관	임시수도기념관, 40계단기념관, 백산기념관, UN묘지기념관
전시관	동삼동패총전시관
기타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경 역사연구소 등

이 외에도 지역 신문사, 방송국, 개인 수집가와 같은 출처에서 기록물을 얻을 수 있다. 오래된 신문을 서비스하는 신문아카이브는 이미 여러 사이트에서 서비스 중이며 방송국에서는 지역사와 관련된 많은 영상 기록물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정치사, 경제사에서 벗어나 마을 이야기, 공동체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민중사·미시사 관련 다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를 지역사 교육콘텐츠에 이용한다면 유용한 정보원이 될 것이다. 개인 수집가들의 기록 같은 경우는 꾸준한 홍보를 통한 기증 유도, 공모전을 통한 모집 등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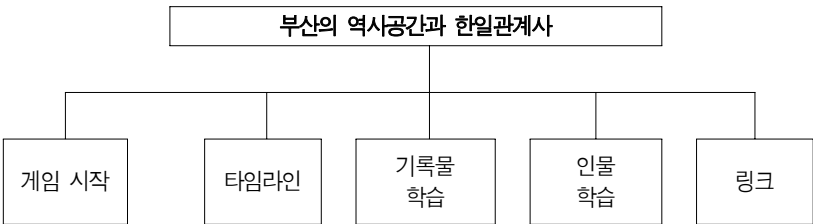
(5) 콘텐츠 설계도

콘텐츠 설계의 시작인 제목은 콘텐츠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고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게임콘텐츠를 시작하기에 앞서 콘텐츠의 성격과 구조를 보여주는 화면에서는 학습의 흐름을 알

26)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박물관(자모순)이 있다.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한다. 게임에 사용될 기록물을 모아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록물학습 메뉴, 인물학습 메뉴와 함께 전체의 시간적 흐름을 보여주는 타임라인 메뉴를 제공한다. 그리고 타 기관의 컬렉션이나 기록물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링크형 콘텐츠를 구축하여 자료의 상호 이용을 도모한다. 부산의 역사공간과 한일관계사 콘텐츠의 메뉴 화면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부산 지역사 교육콘텐츠 주메뉴



콘텐츠 게임의 첫 화면은 부산전체 지도에서 시작한다. 부산 시내 전체의 주요 공간, 건물이 표시된 지도 위에 부산의 근대사와 관련된 공간들이 화살표 안에 표시된다. 이 공간들은 주제 선정에서 지역사 연구자들에 의해서 선정된 부산의 근대사 관련 장소 24곳과 주요 지역사 관련 장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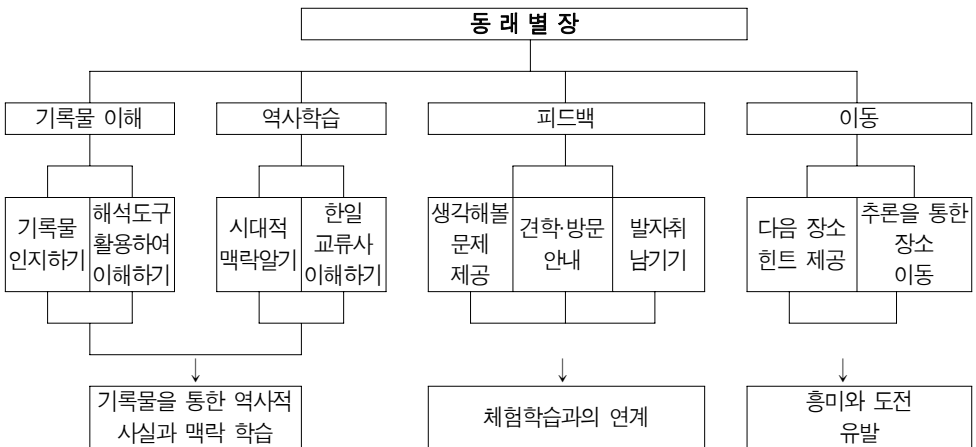
학생들은 이 공간들 중에서 한일관계사와 관련된 공간을 찾아서 모두 학습해 나가야 하며 학습 결과는 누적 점수, 훈장, 스티커 등으로 제공되고 점수나 순위는 공유되도록 한다. 40계단 기념관처럼 부산 근대사 관련 공간이긴 하지만 한일관계사와 관련은 없는 공간일 경우 오답 처리가 되지만 40계단과 관련된 기록을 제시하여 오답의 학습도 가능하도록 한다.

학습자가 장소를 선택하여 클릭하면 장소와 관련된 기록물, 짧은 해설화면이 나오도록 한다. 첫 번째 예시 장소는 연구자 3인 일치항목 중

의 하나로 현재 동래구 온천장에 소재한 일제시대 건축물 ‘동래별장’이다. 학생의 선택이 한일관계사와 관련된 공간이 맞다는 정답화면과 함께 동래별장에 관련된 기록물, 오래된 신문 기사와 사진 기록물이 제시된다. 우측에는 동래별장에 관한 짧은 설명이 함께 제공되는데 이때 텍스트는 기록물의 크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제시되도록 한다. 이는 학생들의 시선이 기록물 쪽으로 먼저 향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 오며 문자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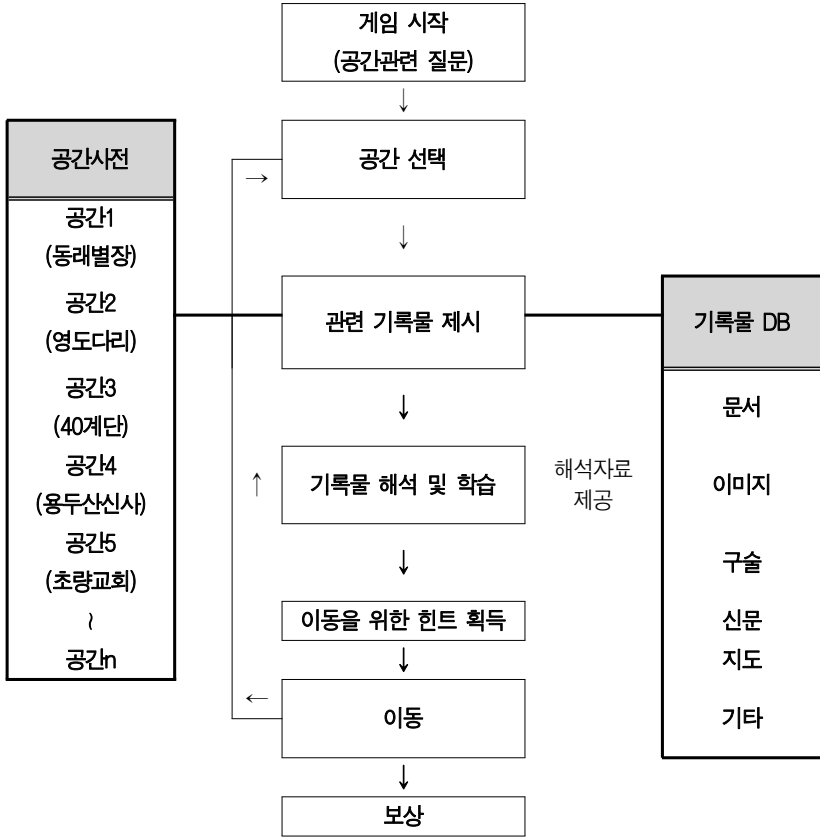
기록물을 선택하면 한자·한글이 혼용된 신문기사는 전체를 한글화한 현대의 신문기사형식을 빌린 화면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사진기록물은 만들어진 시기, 배경과 같은 맥락정보를 제공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신문기사나 개인이 소장한 사진과 같은 사기록은 기록 자체뿐만 아니라 기록이 남겨진 과정까지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엮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역사 학습에 효과적이다. 예시로 들고 있는 교육콘텐츠의 동래별장의 내용 구조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동래별장 학습내용 구조도



부산의 역사공간과 한일관계사 콘텐츠의 게임을 학습자 입장에서 활용할 때의 흐름도는 <그림 4>과 같다.

<그림4> 학습자 입장에서 본 콘텐츠의 활용 흐름



(6) 검토

연구 결과 도출된 기록물을 활용한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 원칙과

그에 따른 부산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 방안과 예시를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학교 역사교사 3명에게 검토하도록 요청하였다. 전화로 연구 내용을 설명한 후에 전자메일을 발송하였고, 교사들은 검토 후에 전자메일로 연구자에게 결과를 보내주었다. 검토는 크게 학습영역, 개발 절차 영역, 콘텐츠 설계영역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콘텐츠의 학습영역에서는 학습대상, 학습내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지역사라는 소재가 아직은 현장에서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내용과 함께 정규 수업보다는 방과 후 활동, 동아리 활동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건의되었다. 학습대상으로는 기록물을 이용한 지역사 학습의 대상으로 중학생이 적절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근대사 부분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역사 학습 진도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수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두 명에게서 나왔다. 학습내용에서는 근대사에 초점이 맞춰진 부산 지역에서 부산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한일관계사 주제가 학습 주제로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다음으로 개발 절차 영역에서는 지역사 연구자, 교사, 기록연구사가 함께 개발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사의 참여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으로 개발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주제 선정이나 기록물 선정과 같은 선택의 문제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 이를 조율할 방법이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역사동아리와 같은 학생 중심의 동아리를 콘텐츠 개발에 참여시킴으로써 학습자들의 눈높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콘텐츠 설계 영역에서는 콘텐츠의 유형, 형식과 구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교육게임형과 자료제시형의 혼합형으로 제작하는데 대하여는 만족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게임형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규칙을 만드는 방안과 학생들 스스로 자료를 찾아내서 탑재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세 명 모두 교사가 콘텐츠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자세한 지침서나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콘텐츠 설계 시에 타임라인을 첫 화면에 제시하여 학습할 시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기록물 영역에서는 사진기록물, 신문기사, 개인 서신과 같은 사기록물 위주의 기록물 선정 기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공문서를 통한 학습은 학생들의 흥미를 반감시키기 때문에 평소 쉽게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기록물의 활용이 보다 학습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기록물의 해설이나 해석과 같은 가공이 선행되어야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에 모두 동의하였으며, 그 방법은 내용을 오늘날의 한글로 바꾸되 기록물의 원형은 유지하여 원기록물을 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 외에 콘텐츠에 사용된 기록물과 함께 추가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나 기록물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5.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해외사례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통하여 기록물을 활용한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지역사와 지역사 학습, 교육콘텐츠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해외사례분석에서는 지역사 교육콘텐츠를 활발하게 서비스하고 있는 미국, 호주, 영국의 주립기록보존소 지역사 교육콘텐츠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들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부산 지역의 중학교 역사 교사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중심으로 부산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에 반영되어야 할 14개의 범주와 35개의 하위범주를 추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와 사례 분석, 면담의 결과를 통하여 지역사 교육콘텐츠의 개발 원칙과 절차를 종합하고 이 절차를 따라 부산의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물을 활용한 부산의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역사 학습, 사료학습의 필요성과 장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지역사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교재나 도구가 미흡하였다. 스마트 교육이 차세대 교육방식으로 떠오른 오늘날 전자 매체로 제공되는 지역사 교육콘텐츠는 지역사 학습의 중요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례분석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지역사 일반에 관한 연구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비단 부산지역뿐 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서도 응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예시에서처럼 지역마다 고유한 특색을 살려서 주제를 선정하고 콘텐츠를 설계한다면 그 지역에 맞는 지역사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기록물을 활용한 일반 교육콘텐츠 연구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주제 콘텐츠 설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록물을 활용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콘텐츠 개발 가능성을 확대하였다. 앞으로 제작될 기록물을 활용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콘텐츠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 목적과 기간의 제한으로 지역사 교육콘텐츠의 개발 절차 도출과 방안 제시에 그쳤으며, 실제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데 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개발 절차와 제시된 방안에 따라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작업은 추후의 과제로 미루어 둘 수밖에 없었으며 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ABSTRACT

A Study on Developing Procedures of Archival Contents for Local History Education of Secondary Education in Busan

Doh, Yun-Jee

The local history research started from the 1960's postmodernism neted in the local history as the subject of diversity instead of National history. The local is being magnified as a new research theme among history scholar. In these circumstances, the local history research shows sign of activity and the movement that used in various ways at education has become more active.

Compared to the contents business of local history, development of education contents what serviced for student is insufficient.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development plan of local history education contents using archives which efficient tool of history education. Students can grow the ability of historical inquiry, thinking, insight through archives-assisted learning. Also, self-learning is possible instead of a lecture by teacher.

This research shows a development of archival contents for local history education though literature research, abroad case analysis, focus group interview with history teachers. Concepts of the local history, local history education, education contents are examined at literature research. Local history education of the State Arch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web site is analyzed. These state archives have

been providing the web based service of archival contents for local history education for a long time. With these theoretical background, carry out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middle school history teachers. It draw conclusion that 14 category and 35 subcategory and these are reflected in the development of archival contents for local history education,

Key words: local history, education contents, state archives